

콜럼버스 교구 성 대건안드레아 한인 천주교회



본당주소: Holy Family Church 584 W. Broad St. Columbus, OH 43215

홈페이지: <http://www.kcolumbus.org>

주임신부: 김충귀 베드로 신부 (badakck@yahoo.co.kr, 614-961-0980)

- * 주일미사 : 매주 일요일 오후 1시 * 평일미사 : 매주 금요일 오후 5시30분
- * 성시간 : 매월 첫째 금요일 미사 후 * 유아세례 : 매월 둘째 주일 미사 후
- * 병자봉성체 : 매월 셋째 주일 미사 후

본당 소식

◆ 예비자 교리 안내

- 교리 기간: 7/3-8/15
(금요일 6시 Parish Center, 토요일 2시 사제관)
- 교리 총정리: 8월 14일(금) 오후 6시
- 세례대상자 참고 및 예절연습:
8월 15일(토) 오후 2시, Parish Center
- 세례식: 8월 16일 주일 미사 중

◆ 첫영성체 가정 교리 안내

- 교리기간: 7/4-8/22
- 첫영성체 참고: 8월 22일 토요일
- 첫영성체: 8월 23일 주일 미사 중

◆ 꾸리아 8월 회합

- 일시: 오늘 미사 후 (3시)
- 장소: Sharon Woods Park (Lake Area)

◆ 매월 둘째 수요일, 본당 빈첸시오회에서 홀리스 무료급식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 일시: 매월 둘째 수요일 12-1시
- 장소: Faith Mission Shelter
599 E 8th Ave. Columbus, Ohio

◆ 김제준 구역 모임

- 일시: 8월 8일(토) 저녁 7시
- 장소: 구역장 자택

◆ 이호영 구역 모임

- 일시: 8월 15일(토) 오후 4시
- 장소: Coffman Park West Shelter
5600 Post Rd, Dublin, OH (테니스장 뒤편)
(443) 279-8314

◆ 친교 준비 봉사자

- 8월 2일: 김성용 8월 9일: 김명호

◆ 8월 친교 후 정리 봉사: 이호영 구역

◆ 2009년 BAA (Bishop's Annual Appeal)

- BAA 모금은 콜럼버스 교구의 모든 본당에서 이루어지며, 모금액은 주교님께서 정하시는 가톨릭 교육 사업, 성소 개발, 사정이 어려운 단체나 본당 지원 사업 등에 사용됩니다.
- 올해 우리 공동체의 목표금액은 \$5,700이며, 지난해까지 모금액은 \$3,300입니다.
- 참여하실 분은 재무위원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세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성모회에서 롯데 상품권을 판매합니다. 판매금액의 10%가 성모회 기금으로 모입니다. 교우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지난주 우리들의 정성

주 일 헌 금	\$549.60
교 무 금	\$500.00
감 사 헌 금	\$1,000.00
BAA	\$150.00

- 교무금: 사운진 임상순 최영자
- 감사헌금: 임상순
- BAA: 김상욱



성 대건안드레아 한인 천주교회

St. Andrew Kim Taegon Korean Catholic Community

연중 제18주일 August 2, 2009



< 엠마오의 만찬 >

들라크루아(1798-1863), 유채, 브루클린 예술박물관, 뉴욕, 미국

“나에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을 것이며,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오늘의 전례

제 1 독서 탈출기 16,2-4.12-15

“내가 하늘에서 너희에게 양식을 비처럼 내려 주리라.”

화답송



제 2 독서 에페소서 4,17.20-24

“여러분은 하느님의 모습에 따라 창조된 새 인간을 입어야 합니다.”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 ◎ 알렐루야

복음 요한 6,24-35

“나에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을 것이며,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공동체를 위한 묵주기도 50만단 바치기 운동

- 지향1) 공동체 자체 건을 마련을 위한 지향
- 지향2) 공동체 안에서 고통중인 신자를 위한 지향
- 지향3) 공동체 안에서 성소자 계발을 위한 지향

구역	지난 주일		합계	
김제준	단	명	5,923단	34명
이호영	360단	2명	22,484단	152명
정하상	단	명	3,485단	77명
황석두	단	명	7,460단	78명
김효임	단	명	1,171단	29명
기타	단	명	130단	3명
미사중	단	명	12,109단	10,315명
	360단	2명	2/22/04 -7/26/09 (283주)	

총누계: 217,472단 12,787명

묵주기도 목표단수는 매주 5천단입니다.



봉사자 안내

	8월2일	8월9일
해설자	고상식	안유신
독서/봉헌	정하상 구역	이호영 구역
보편지향 기도	평화의 모후	상지의 옥좌

오늘의 성가

♪ 입당: 2 ♫ 봉헌: 211
 ♫ 성체: 501 156 ♫ 파견: 5

생명의 말씀

순수한 믿음을 가진 사람

허영엽 마리아 신부 | 서울대교구

오래전 본당에서 1년 동안의 예비자 교리를 마치고 세례성사를 위해 마지막 면담을 할 때였습니다. 그때 형제 한 분과 나눈 대화가 제 기억 속에 지금도 생생하게 남아있습니다.

“신부님! 저는 시장에서 작은 신발 가게를 합니다. 사실 제가 성당에 온 이유가 신발을 많이 팔기 위해서였습니다. 옆 가게를 보니 주인이 천주교 신자라 성당 사람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세례를 받고 성당에 다니면 돈을 더 많이 벌게 될 것이라 생각했죠. 그런데 교리를 배우면서 제 생각이 완전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신앙을 가지는 것은 결코 순수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신부님! 제가 돈에 눈이 멀었습니다. 너무 죄스럽습니다. 용서해주세요.”

“형제님! 하느님은 형제님을 바로 그런 방법으로 부르셨나 봅니다. 이미 하느님이 다 아시고 용서해주셨을 것입니다. 용기를 갖고 세례를 받으세요.”

그분은 지금도 아주 열심히 그리고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도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찾아 배를 타고 멀리 가파르나움까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군중들의 어리석은 기대감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힘쓰지 말라고 말입니다. 오직 영원한 생명을 주는 양식을 얻으려고 힘쓰라고 하십니다. 헛된 것에 힘을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군중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빵의 기적을 올바로 이해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들의 세속적 욕심을 한껏 채워 줄 분으로 기대했고, 충분히 자신들의 왕이 되고도 남을 위대한 인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것의 중심이 예수님이 아니라 자신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군중들은 “그럼, 하느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까?”하고 다그쳐 묻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하느님의 일은 그분께서 보내신 이를 너희가 믿는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대답하십니다.

믿음을 이기적 욕심을 채우는 방편으로 생각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아주 왜곡되어 버립니다. 마치 부모님께 효도를 드리는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과 같습니다. 신앙은 바로 하느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어쩌면 그 옛날 예수님께 꾸지람을 들었던 군중이 바로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자신의 이기적인 생각이나 욕심에 사로잡혀 있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지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욕구를 채우는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잘못도 범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언제나 어느 때나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과 자신의 욕심가운데서 갈등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의 복음말씀을 기억한다면 순수한 믿음을 되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나에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을 것이며,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요한 6,35).